

지난해 지방의료원 34곳 모두 적자

강진 30억·순천 11억·목포 6억 달해

복지부, 국립대 병원 연계 경영 개선

목포·순천·강진 의료원 등 전남의 3개 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모두가 지난해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공의료 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의 당기순손실(적자)은 총 863억원에 달했다.

한 곳당 평균 25억원 꼴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별 적자규모를 보면, 건물 신축 영향으로 서울의료원이 172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의료원이 69억4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시 의료원과 인천시 의료원도 각각 34억3700만원과 33억1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강진의료원이 30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천의료원이 10억9900만 원, 목포의료원 6억2200만원 등이었다. 2012년 12월 현재 부채는 시설·장비 투자,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총 5338억원에 이르렀다.

한 곳당 평균 1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보면 군산의료원이 425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의료원이 392억82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지역 의료원 중에는 강진의료원이 105억91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순천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은 각각 88억4800만원과 77억5300만원의 부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11개 지방의료원은

총 156억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의료원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은 시설 노후,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수익은 낮는데 관리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기능을 강화하면서, 특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사과건, 교육훈련, 경영자문, 위탁경영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의료원과 경영성과계약을 맺도록 해 지방의료원별로 성과보상체계, 진료

과목 조정, 총액인건비제, 임금피크제 등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방의료원 34곳 중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등 14곳(41%)이 단체협약에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족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퇴직이나 업무상 사망·상해 때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해당 단체협약이 이미 사문화됐으며, 업무능력을 고려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일부업체 퇴직보험료 유용 의혹”

진보신당, 준공영제 예산 주민감사청구 추진

광주 시내버스 일부 업체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전원들의 퇴직연금보험료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추진된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감사 청구 서명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광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전원들의 퇴직금 증가를 염려한 나머지 10개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하면서 퇴직금 지연이자(연 20%)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4년간 40억원을 지원했는데 업체들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광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4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들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민감사청구 특별위원장은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시는 운전원 봉급(총액기준)의 8.33%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매달 3억여원을 10개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급하고 있는데, 2~3개 업체는 1년에 2~3만 퇴직연금 보험료를 낼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광주시는 시내

버스 보험료를 운송원에게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데도 시내버스 업체는 운전원들에게 교통사고 부담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조합원의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로 매월 100만원의 초과수당을 주는 것도 부당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초과수당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업체의 버리 온산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과거 현대교통이 퇴직연금보험료를 체불임금, 연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지난해 정산검사 결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연체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4억원 ▲2011년 313억원 ▲2012년 350억원 이상(추정치)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법 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작년까지 이익금 1조3천억 금융회사만 배 불렀다

이용섭 “채무조정에 써야”

한마음금융·희망모아·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지난해 말까지 1조 3069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익금 모두를 금융회사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일 이용섭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 규모는 246만4800명에 총 23조 2091억원에 달하며 이를 매입하는 데 채권액의 5.3%인 1조 2291억원의 매입대금이 들어갔다.

이들 채권의 회수실적은 채권액의 15.7%인 3조6471억원으로 매입액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1조3069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이 모두 금융회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이 많았던 한마음 금융의 경우 회수율이 57.6%에 달하며 금융회사로 배당한 이익금도 8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이익이 나면 이를 채무조정에 써야 하는데도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는 것은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부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계대출이 부실화된 데에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에게도 책임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에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바꿔드림론)을 지원하거나 빈곤층의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제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관계자들이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 운영 방침을 철저히 할 것”을 문화부에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亞문화전당 문화부 소속으로 운영해야”

광주문화단체 “법인 위탁 안된다” 강력 반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준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대로 정부 조직에 의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전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당은 예술의 전당처럼 공연장을 대관·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콘텐츠를 창작하는 곳으로 정착하기까지 초기 예산이 많이 든다”며 “전당의 운영 주체를 문화부가 아닌 법인이 맡으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되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 기구를 구성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5개구 문화원으로 구성된 광주시문화원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문화전당을 명확한 근거없이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케 하려는 것은 향후 전당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1일 美 샌안토니오서 도시환경협약 회의

강운태 시장 축사

2013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UEA 사무국과 샌안토니오시 및 국제제도시연합(SCI)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샌안토니오 정상회의는 25개국 180여 도시의 시장과 대표단 500여명이 참석한다.

UEA 공동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은 이번 회의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샌안토니오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열린 UEA 광주정상회의 이후 UEA 사무국이 추진해온 ‘도시온실 가스 예측·진단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또한 UNEP는 ‘도시환경평가지표’를, UNFCCC(기후변화협약)는 ‘도시계획적 도시 CDM(청정개발체제) 현황’, 월드뱅크는 ‘저탄소 도시개발 프로그램’ 등을 각각 발표한다.

샌안토니오 정상회의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제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관계’ 주제와 관련한 ‘샌안토니오 선언문’을 채택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삼희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중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컨설팅사무소

★매매★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1억원(병영직할)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면 일야 32.231㎡ 매매가 1㎡당 4천5백원
- 서구 벽진동 탄양고 인근 담 410㎡ 도로점 매매가 196천7백만원(투자직할)
- 광산구 산정동 고속전철 차령지리 인근 담 836㎡ 매매가 1억1천만원
- 북구 오치동 억자골목내 원룸촌 내대지 407㎡ 3억 2천만원 (상가주택, 임물산속직할)
- 화순읍 홍리 공근별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1칸 대중 매매가 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 474㎡ 1층점포3곳임대 2.3층 주택4곳임대 (영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1억7천만원
- 화순읍 김도리 전 1868㎡ 매매가 6천2백만원
- 원도군 금암읍 사동리 도로점 전 3547㎡ 매매가 5천만원

★임대★

- 동구 윤림동 중심사 버스중점 아웃도어 매장 뒤면 2층 레스토랑 198㎡ 불연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바권있음
- 문흥지구 1층 꼬치구이 50㎡ 억자골목내 중심상권 한성업종 보1천만원 월1백만원 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 606㎡(음) 현성업종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바권있음
- 북구 오치동 억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종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바권있음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1층점포 66㎡ 보1천만원 월30만원 시바권있음 (모든업종가)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구역 친인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바권있음 (식당직할,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자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원,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례 예식장, 투지회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울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0-3640-1211